

>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자는 정보원과 취재원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기사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야 하는 기자로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 줄의 기사도 쓰지 못한다.

남미문학의 확장성 살찌운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



소설가이자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인 조용호(42) 씨와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인 송병선(41) 씨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됐다. 데스크가 새로운 기획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조 기자와 송 교수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만났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아주 형식적인 만남이나 간단한 전화통화로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중남미 문학기행을 기획한 조 기자로서는 송 교수가 '이주 많이' 필요했다. 중남미문학 기행에 나섰다가 중도귀국하지 않으려면 단국대 고혜선 교수와 송 교수의 '한 수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서울 용산의 한 호프집에서 송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송 교수가 번역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책을 들고 가 취재일정에서부터 현지인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이드를 요구한 셈이요.”

조 기자가 송 교수를 찾은 것은 썩 잘한 일이었다. 송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후 콜롬비아 카로이 쿠에르보 연구소에서 석사과정, 콜롬비아 하베리아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그리고 하베리아나 대학교 전임교수까지 9년간 콜롬비아에 머물렀던 남미통이었다. 그러나 남미에서 돌아온 지 벌써 15년, 까마득한 옛날이야기였다.

“콜롬비아에서는 비평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 비평을 할 텍스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한동안 본업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일에 쫓기다보니 다시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났어요. 올해 멕시코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할 때 만났던 교민들이 이젠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더군요.”

송 교수는 처음 만난 조 기자와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톡톡이 여행하며 경험했던 중남미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러니깐 그때 조 기자를 만나 송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에 오기 직전인 15년 전의 이야기였던 셈이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소문난 콜롬비아 북서부 항구 카르타헤나에서 산타마르타까지 이어진 길을 카리브해를 따라 달려갔다. (...) 소설 속 마콘도의 모델은 마르케스가 태어난 대서양 쪽 아라카타카 부근의 농장이다. 아라카타카는 이미 게릴라들의 본거지가 돼 버려서 그곳까지 갈 수 없었지만 카르타헤나에서 산타마르타에 이르는 카리브해 인근 지역은 카리브해 주



조용호 기자(왼쪽)와 송병선 교수.  
동년배인 이들은 중남미문학을 매개로 허물없는 사이가 됐다.

변부 마을의 상징적인 이름인 마콘도의 배경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카리브 해변의 고사목 늪지 뒤편 움막, 바다와 바다사이의 좁은 공간에 벌집처럼 운집한 퇴락한 마을, 해변 노천시장에 운집한 부엔디아 가문의 후손들...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카리브해에 내리는 고독) 중에서

이후 몇 차례 더 송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조 기자의 기행문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마음산책)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조 기자는 중남미 취재중에도 취재통로가 막히면 송 교수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돌아와서도 마감 직전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잠들어 있는 송 교수를 깨우길 수차례였다. PD(송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단지 다리품을 팔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조 기자에게 송 교수는 손사래를 친다.

“저도 신문에 중남미문학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중남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셋이서 2회씩 돌아가면서 글을 썼죠. 하지만 작가나 작품에만 집중하다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조 기자의 글은 팩트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적인 관찰력과 소설가적인 상상력이 결합해 보다 편안하게 읽혔습니다. 조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 역시 친절한 안내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책은 제3자의 평가가 중요한데, 제 아내가 조 기자의 책을 보더니 전공자인 나보다 훨씬 잘 썼다고 그러더군요.(웃음)”

조 기자의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은 중남미의 가장 대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 조용호 지음 | 마음산책 | 294쪽 | 값 12,000원

표적인 1세대 작가들의 작품과 그 배경을 담고 있다. 중남미문학은 한동안 스페인의 아류로 치부되다가 1960년대 후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바르가스 요사 등 걸출한 작가들이 출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1990년대 이들의 작품이 활발히 소개돼 현재는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은 번역본만 10여 종이 넘고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작품은 《불한당들의 세계사》를 비롯, 5권짜리 전집까지 출간됐을 정도다. 파블로 네루다(칠레), 옥타비오 파스(멕시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페루) 마누엘 푸익(아르헨티나) 등 웬만한 중남미 작가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흔히 마르케스의 문학을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지에 가면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카리브해는 햇빛이 풍부하고 눈부시게 하얀 빛깔입니다. 음울함은 강렬한 햇빛에 휘발돼 전혀 새로운 모습을 창조합니다. 현실과 환상이 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남미만의 리얼리즘입니다. 같은 비극을 이야기하더라도 러시아처럼 음울하고 어두울 수는 없죠.”

조 기자는 여행에서 돌아와 미련과 아쉬움이라는 짐을 한 동안 풀지 못했다. 취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12번 이상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던 중남미 취재는 노동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꼭 가봐야 할 곳의 표지판을 보고도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그냥 지나친 적도 많았습니다. 한번 비행기를 잘못 타면 전체 취재 일정이 엉클어지거든요. 다만 텍스트를 주제로 들고 갔기 때문에 남들은 가지 않는 곳을 다녀올 수는 있었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조 기자는 이러한 중남미취재 경험을 단편소설로 발표하기도 했다. 작품집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에 수록된 〈잉카의 여인〉이 그것이다. 몸은 지쳐서 돌아왔지만 머리 속으로는 저널리스트로서 감당해야 할 남미, 소설가로 감당해야 할 남미를 중치하게 분류해 놓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중남미문학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가 작업한 것처럼 유럽에서 1960, 1970년도에 선호했던 1세대 작가들이 중심이죠. 중남미문학을 연구한 저 역시 그렇게 만든 주범 중의 하나에 이런 거예요. 청탁이 오면 영어권의 경우 어떤 작가의 무슨 작품을 번역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데 중남미의 경우 편집자도 잘 모르니까 중남미문학을 하나 기획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게 없냐고 오히려 기획을 부탁하죠. 그럼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선호하거나 하기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 말고도 더 새롭고 다양한 작품이 많다고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자꾸만 눈에 익은 것만 고집해요.”

솔직히 조 기자의 남미취재 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놓고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미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과 함께 놀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밤이 되면 축제로 변하는 그들의 신명을 이해해야 남미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조 기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곧장 짐을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장편소설을 쓰기 위해 큰맘 먹고 휴직을 했는데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도 끝났으니 동해안 어디에 숨어들 계획이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송 교수가 ‘아픈 곳’을 건드렸다. 내년엔 쿠바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송 교수는 현재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소를 운영하며 ‘카리브해의 문화현상과 담론’을 연구하고 있는 참인데 ‘쿠바’ 얘기가 나오자 조 기자의 눈빛이 흔들린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인연은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게 틀림없었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